

2008년 12월 19일 금 말씀

피아노부는 자꾸 노래를 작곡하십시오. 우리가 일반 사람들 곡에다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사를 썼으니까 멋있게 곡을 만들면 됩니다. 자꾸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듭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70살 먹은 노인도 힘을 다해 구원받겠다며 그렇게 사는데 곡을 쓰는 것도 그렇게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고집 있게 계속 하다가 한 마디 나오면 곡 한 개가 나옵니다. 나온 후에는 평생 동안 부르게 됩니다. 피아노부도 자꾸 해서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1년에 하나씩만 곡을 썼어도 지금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작곡을 하는 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내가 작곡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대기자들은 목회하는 장소를 돌아다녀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본인 나름대로 어디까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람하나 다루면 많은 사람을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계속 뛰어야 합니다. 내가 잠언을 쓸 때도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 가야 써집니다. 새 노래도 그냥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서 해보고, 탄 사람이 되는 지도 보고 해서 쓰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다룹니다. 전혀 다릅니다. 생각한 것과 실제와 다릅니다. 생각한대로 되면 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100명에 1명 성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스리고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농사짓듯, 고기 잡듯 그와 같이 하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지 몰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다가 교회 맡게 되면 하면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풍을 맞으면 맥을 못 씩니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풍을 무서워합니다. 중풍 맞고 병원 다녔던 사람을 내가 계속 기도를 해줬더니 나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쓰러지셨을 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돈도 안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기도 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상부는 계속 구상해서 자꾸 멋있게 옷을 만드십시오. 천사옷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천사옷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으니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자꾸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방법은 모두 다 썼으니 또 새롭게 하고 또 하고 해야 합니다. 인구가 불어나면 거기에 맞춰 길을 또 내고 집도 짓고 새롭게 하듯이 자꾸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기성교회 다닐 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10년 동안 똑같았습니다. 본문 말씀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연구를 안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안 찾으니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목사 되면 저렇게 안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읍 단위 지역 개척은 사람을 자꾸 길러 도시로 내보내야 합니다. 교역자들 관리 열심히 해주십시오.